

고용창출의 원천은 어디인가: 일본의 사례*

권 혁 옥 (일본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1. 서론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실업에 의한 고용불안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2002년 이후 외수주도하에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율을 개선함으로써 소위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등 총수요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¹⁾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를 통해서 가계부문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용창출의 원천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업 데이터를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먼저 고용창출의 원천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1969년부터 1976년의 사이에 순고용 증가의 66%,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 사이 순고용 증가의 82%가 고용 규모 20명 이하의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래,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²⁾ 이후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해 기업규모와 순고용 변화율 간의 강한 마이

* 본고는 2012년에 발간된 일본의 히토즈바시 대학의 후카오 교지교수님과의 공저논문인 『どのような企業が雇用を生み出しているか』를 발췌 요약한 글이다.

1) 深尾京司, 『失われた20年』と日本経済一構造的な原因と再生への原動力の解明,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2.

2) Birch, David L. (1981), "Who Creates Jobs?" *Public Interest*, Vol. 65, pp.3-14.

너스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금융지원등과 같이 많은 중소기업우대정책이 시행되어왔다.³⁾

이에 반해서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는 1972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제조업 고용창출의 50%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500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루어짐을 보인 연구결과는 고용창출의 원천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 Neumark, Wall, and Zhang(2011)는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의 연구결과에 재반론을 제기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2010)는 기업의 연령을 고려하면,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고용창출이 크다는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를 통해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의 원천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어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 일본에서 연구되어오지 않았던 이러한 내용과 함께 기업의 소유형태와 고용창출의 관계에 대해 2001년과 2006년 일본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기업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2. 기업규모와 소유형태로 본 고용의 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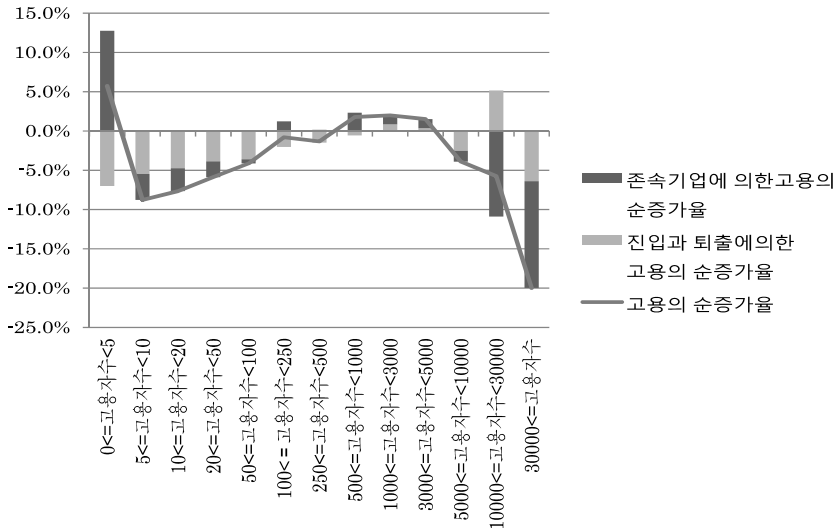
기업규모와 고용의 순증가의 관계를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1>은 기업의 고용자수로 나누어진 기업규모별로 존속기업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 진입과 퇴출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과 둘의 합인 순고용의 증가율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용자수 5인 이상 5000인 이하의 기업규모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의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커갈수록 퇴출확률이 낮아져 진입과 퇴출에 의한 고용의 순감소율이 작아지는 동시에, 존속기업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자수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고용의 순증가율이 플러스로 나타난다.

Birch, David L. (1987),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New York: Free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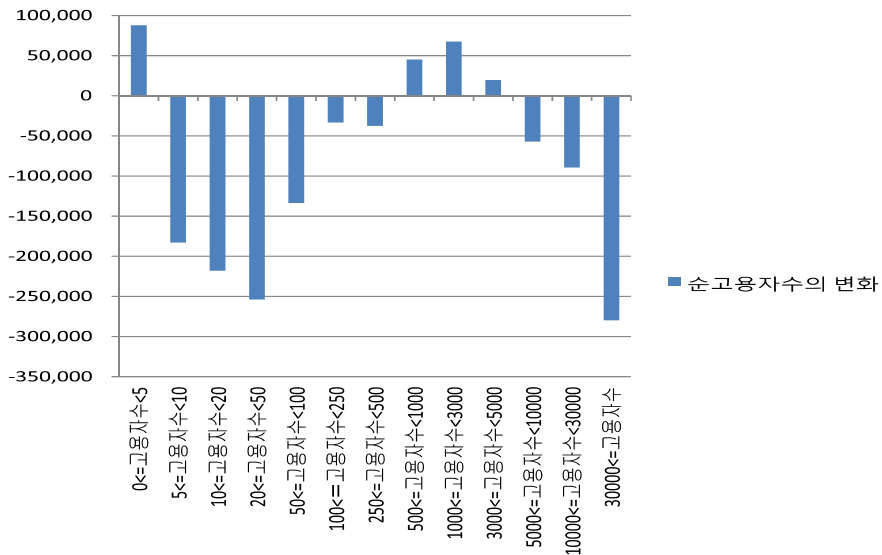
3) 일본에서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상시고용자 300인 이하의 기업이다. 단 도매업에서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또는 100인 이하, 소매업에서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 또는 50인 이하, 서비스업에서는 5000만엔 이하 또는 100인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그림 1> 기업규모와 존속기업 및 진입과 퇴출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의 관계: 2001-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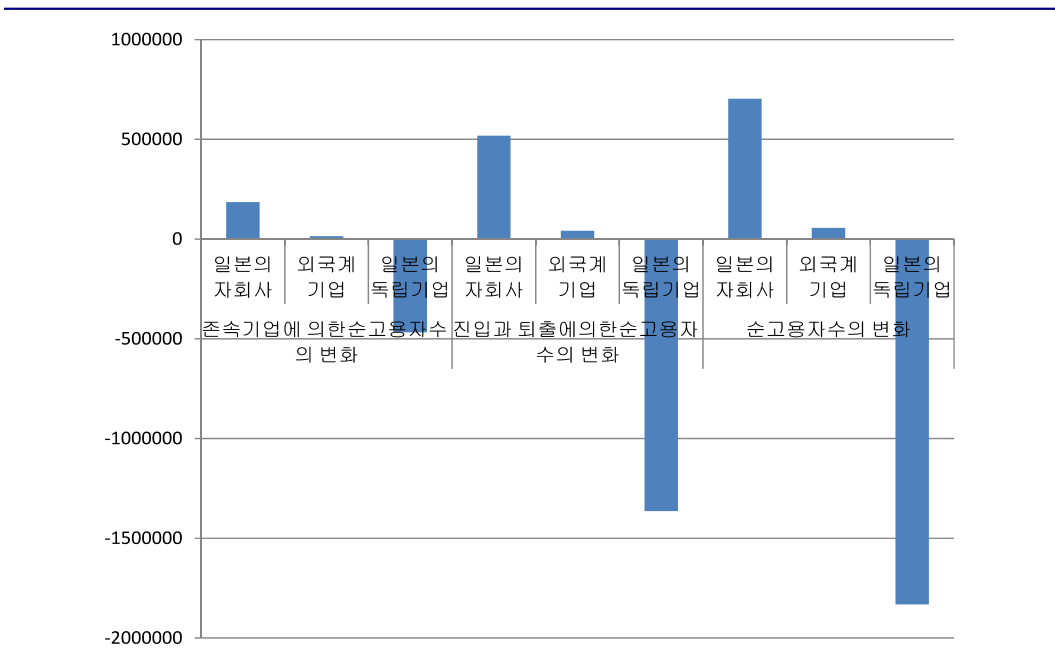
위에서 본 중간 그룹의 경향과는 다르게 5000인 이상의 기업규모 그룹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존속기업에 의한 고용의 순감소율이 커져 고용의 순증가율이 낮아진다. 존속기업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고용자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그림 2> 순고용자수의 변화: 2001-2006년



<그림 2>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규모별로 변화된 순 고용자수의 절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림 1>에서 본 기업규모와 고용의 순증가율간의 관계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고용자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9만명, 고용자수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이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했지만 다른 기업규모에서는 고용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자 50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고용이 43만명 감소했다. 5000인 이상의 대기업이 고용을 크게 감소시킨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에 속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국적화 되어, 해외의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찾아 생산거점을 해외에 이전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 있는 대기업은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분사화 등을 통한 기업 내 리스트라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로 본 이상의 결과로부터 일본에 있어서 고용창출은 중소기업보다는 500인 이상 5000인 미만 규모의 중견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기업의 소유형태별 순고용자수의 변화: 2001-2006년



<그림 3>은 소유형태별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순 고용변화를 고용자의 절대수로 표시한 것이다. 소유형태는 일본의 자회사(의결권 50%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친회사가 국내에 있는 기업), 외국계 기업(의결권 50%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친회사가 해외에 있는 기업), 독립계 기업(일본의 자회사, 외국계기업을 제외한 전기업)으로 분류해서 분석한다. 소유형태의 변화보다는 고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2001년을 기준으로 소유형태의 변화는 없다는 가정하

에 분석하였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독립계 기업은 2001년에서 2006년사이에 183만인의 고용을 감소시켰다. 고용감소의 주요 요인은 존속기업 안에서의 고용감소보다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감소로 생긴 진입과 퇴출에 의한 고용감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자회사는 일본의 독립계 기업과는 달리 고용을 70만인 증가시켰다. 이는 친회사인 대기업이 임금률이 낮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외국계 기업도 일본의 자회사처럼 고용을 6만인정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을 생각하면 외국계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확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일본의 독립계 기업은 고용을 크게 감소시킨 반면에 일본의 자회사와 외국계 기업은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제조업에 있어서의 거래구조와 기업속성

위 아래	기업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300인 이하의 기업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균 종업원수 중앙치	주요 구매기업수 평균 중앙치	주요 판매기업수 평균 중앙치
상장기업	773 0.5	65 8.4	2,372.8 1,013	109.5 49	46.1 21
1차 거래기업	40,880 28.5	39,250 96	71.3 25	4.7 3	5 3
2차 거래기업	29,305 20.4	28,827 98.4	36.2 13	3.1 2	2.8 2
3차 거래기업	8,545 5.9	8,457 99	29.4 12	2.7 2	1.9 1
4차 거래기업	2,400 1.7	2,385 99.4	27.6 12	2.6 2	1.9 1
5차 거래기업	754 0.5	746 98.9	29.5 13	3.1 2	2.1 1
6차 거래기업	333 0.2	326 97.9	35.3 13	2.9 2	1.7 1
독립계기업	60,638 42.2	59,926 98.8	20.8 10	2 1	1.3 1
합계	143,628 100	139,982 97.5	51.8 14	4.27 3	3.84 2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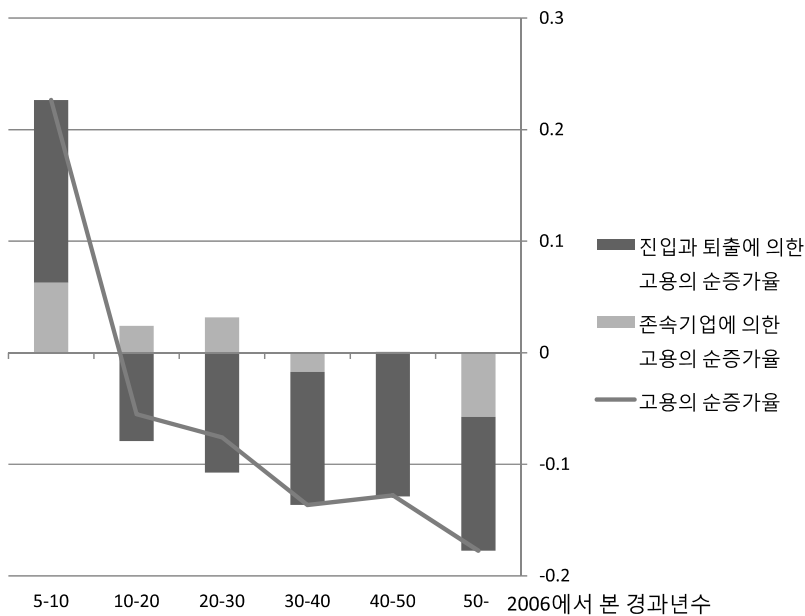
고용을 크게 증가시킨 중견기업과 일본의 자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짐작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소기업백서 2007년』에 나온 일본제조업의 거래구조와 기업특성을 요약한 <표 1>을 보자. 일본의 중소기업에는 독립계 기업이 약50% 그리고 대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기업이 약50% 존재한다. 독립계 기업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기업의 평균 규모는 20인에

서 71인정도로 아주 작은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고용을 80만인 감소시키고, 5000인 이상의 기업에서 고용을 40만인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⁴⁾ 이 결과는 <표 1>에서 보여지는 상장기업과 300인 이하 규모의 하청기업, 독립계 기업의 고용감소가 일본전체 고용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에 기초하면 상장 기업과 같이 국제화 되고, 효율적인 대기업과 거래관계 및 자본관계를 가지고 있는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의 연령으로 본 고용의 순증가율

기업 설립 후 경과 년 수(기업연령)와 고용의 순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4>는 기업연령 별로 존속기업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 진입과 퇴출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과 둘의 합인 순고용의 증가율을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보여준다.

<그림 4> 기업연령과 존속기업 및 진입과 퇴출에 의한 고용의 순증가율의 관계: 2001-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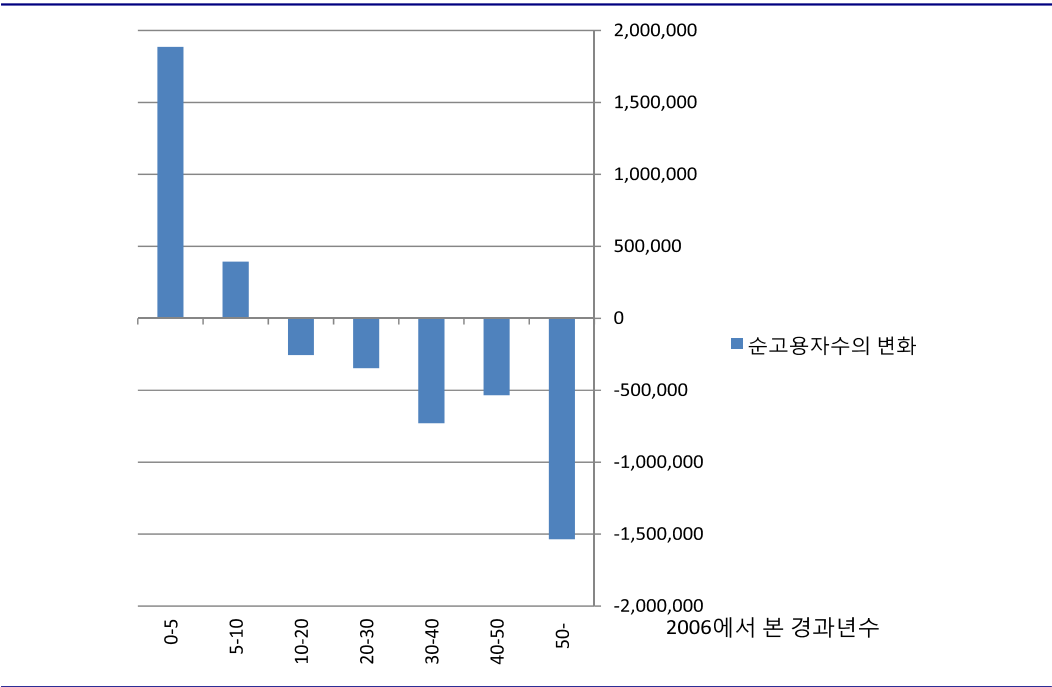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연령 5-10년인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연령이 낮은 기업에서, 존속기업이 매우 활발하게 고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기업연령이 높은 존속기업의

4) <그림 2>의 결과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순증가는 낮아지고, 기업연령이 30년을 넘으면 존속기업의 고용증가는 마이너스가 된다. 기업연령이 5-10년인 기업의 고용의 순증가율이 5년간 23%인데 비해서, 기업연령이 50년 이상의 기업에서는 고용의 순감소율은 18%으로 기업연령과 고용의 순증가율의 관계는 매우 강한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는 2001년에서 2006년의 기간 동안 기업연령별로 변화된 순고용자수의 절대수가 표시되어있다.

<그림 5> 순고용자수의 변화: 2001-2006년



2006년에 있어서 기업연령 40년 이상(1966년 이전에 설립)인 기업에 의해서 감소한 고용자의 수는 207만명 인데 비해, 기업연령 10년 미만(1996년 이후에 설립)인 기업에 의해서 증가한 고용자의 수는 228만명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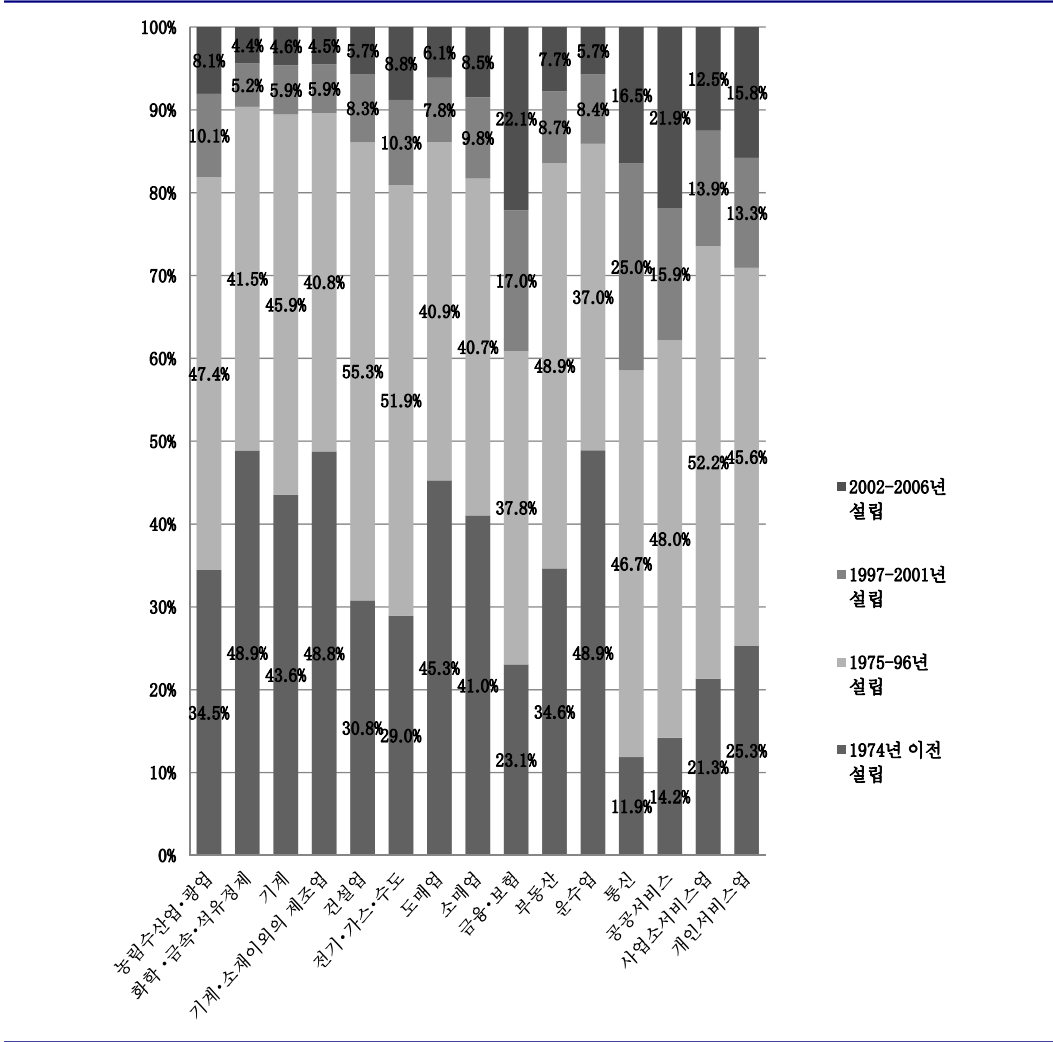
위의 결과로부터 일본에 있어서 고용창출은 연령이 낮은 기업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 젊은 기업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일본의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진입, 규모확대를 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 규모축소를 하는 경제의 신진대사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⁵⁾ 일본경제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어떤 산업에 젊은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기업 중 어느 정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림 6> 산업별 · 설립년도별 기업분포: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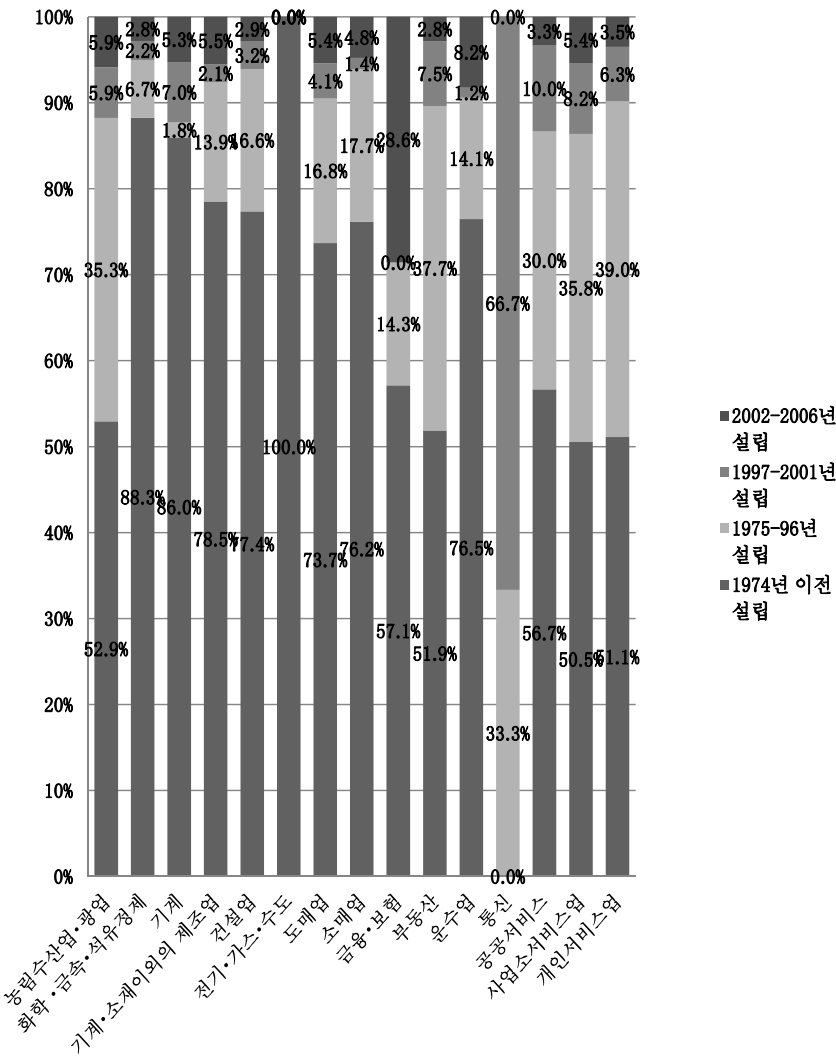


위의 <그림 6>에는 2006년 15개 산업의 기업연령에 관한 기업분포가 표시되어 있다. 비교적

5) Fukao, Kyoji and Hyeog Ug Kwon (2006) “Why Did Japan’s TFP Growth Slow Down in the Lost Decade?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Firms,” *Japanese Economic Review*, Vol. 57, pp.195-228.

젊은 기업들은 최근에 급속히 확대된 서비스업에 많고, 제조업이나 상업 같이 오래 된 산업에는 적게 분포함을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이상인 산업을 젊은 기업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통신(41%), 금융·보험(39%), 개인서비스(29%), 사업소서비스업(26%) 순이다. 특히, 금융·보험에서 젊은 기업이 많은 것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에 산업전체의 재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화학·금속·석유정제, 운수업, 기계·소재 이외의 제조업, 도매업, 기계, 소매업에서는 1974년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각각 48.9, 48.9, 48.8, 45.3, 43.6, 41%이다.

<그림 7> 가장 대규모의 기업군에 있어서의 산업별·설립년도별 기업분포: 2006년



경제의 신진대사 기능 활성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젊은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젊은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15개 산업에 속한 기업을 고용자수의 규모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누어, 가장 큰 기업군에 젊은 기업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었다. 각 기업을 고용자수의 크기에 따라서 나열한 후, 각 그룹의 총 고용자수가 산업 전체 고용자수의 25%가 되도록 하였다. 기업연령에 따른 그룹도 4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림 7>은 규모에 따라 분류한 4그룹 중에서 가장 대규모에 속하는 기업군에 기업연령에 따라 분류한 4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별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업연령별 기업분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대규모에 속하는 기업군에 있어서도 제조업이나 상업과 같이 오랜 산업에 있어서는 젊은 기업의 비중이 낮다.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건설업과 같은 산업에서 짧은 시간에 성공한 기업은 적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규모의 기업그룹에서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특히 낮은 산업을 비중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스·수도(0%), 화학·금속·석유정제(5%), 소매업(6%), 건설(6%), 기계·소재 이외의 제조업(8%), 운수업(9%). 이러한 산업 중에서 전기·가스·수도, 화학·금속·석유정제, 운수업은 자본집약적이고 수요의 성장이 낮은 반면 기존의 기업이 엄청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비용 역시 매몰(sunk)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투입 산업에서 생산성의 엄청난 향상이 일어난 정보혁명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ICT투자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늦어져 미국과 같은 정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상업, 운수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등은 ICT를 투입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서조차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 진입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적다는 사실은 과감하지 못한 일본의 ICT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대규모기업이 속한 그룹 내에 1997년 이후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통신(67%), 금융·보험(29%), 사업소 서비스업(14%), 기계(12%), 개인서비스업(10%) 등이다. 기술혁신이 많고, ICT의 이용과 생산이 활발한 대표적 산업인 통신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젊은 기업들이 놀라울 정도로 건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근혜 당선자는 “오늘날 대기업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갔는데 지금은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사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할 것임을 보였다. 그 동안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규모 수준만을 반영한 전통적인 기준 하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고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 그리고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기업과 거래와 자본관계로 연결된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의 대부분을 만들고 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제조업이나 운수업 보다는 통신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이 새로운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직면한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근거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보다는 기업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다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서비스 산업의 기업 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많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중견기업을 국내의 대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더 잘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도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쟁에서 보호되어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대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성장산업에 더 많은 기업이 진입해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젊고 활력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결 론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기업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본의 고용창출의 원천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분석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규모와 고용의 순증가에 대한 강한 역의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용을 가장 활발히 만든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다.
- 2) 일본의 독립계 기업은 고용을 크게 감소시켰지만, 일본의 자회사와 외국계 기업은 고용을 증가시켰음을 발견했다.
- 3) 기업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고용을 창출함을 발견했다. 일본의 경우 30년 넘게 존속하는 기업은 고용을 감소시켰다. 이는 고용창출의 결정요인으로 기업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4) 젊은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분석하고 어떤 산업에서 젊은 기업이 성공하는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통신, 금융·보험, 사업소서비스업, 기계,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젊은 기업이 크게 성공함을 알았다.

위의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변화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화된 대기업들과의

거래와 자본관계 연결은 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고용의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Davis Steven J., John C. Haltiwanger, and Scott Schuh (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Cambridge: MIT Press.

Haltiwanger, John, Ron S. Jarmin, and Javier Miranda (2010), "Who Creates Jobs? Small vs. Large vs. Young," *C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10-17, U.S. Bureau of the Census.

Neumark, David, Brandon Wall, and Junfu Zhang (2011), "Do Small Businesses Create More Jobs?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Establishment Time Se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3, pp.16-29.